

당정, 설맞이 지역상품권 4.5조 발행

소상공인·특수노동자 지원 16대 핵심 성수품 연휴전 공급 한시적 기부 세액 공제 상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민생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이나 특수노동자, 취약계층 지원을 서두르고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설 전에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와 조류인플루엔자 여파가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16대 핵심 성수품을 연휴 전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또 민주당이 이익공유제 일환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적용 중인 대출 상환유예 제도를 재연장하면서 금리까지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역사랑 상품권의 1분기 발행규모를 4조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을 2배로 확대한다.

특별지원 프로그램으로 한파 취약계층 지원도 늘린다. 당정은 설맞이 기부 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상향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설부터 지급하려 했던 재난지원금을 앞당겨 설 이전에 거의 다 집행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그것으로 충분할 수 없다.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충분치 못한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설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한 차별한 대응을 정부에 주문한다"며 "공공 일자리 창출 등 기존 고용지원정책을 대폭 확대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명절 전 가계·기업의 소득 확충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조기 지급, 공공기관의 선구매 체결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2월 어려운 고용사정을 고려해

직접일자리 104만 개 중 70만명 이상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1분기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2만 8000명 이상 채용하도록 고용지원에 역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은 이익공유제 일환으로 공적자금 투입 방안을 놓고 관계부처 및 금융권과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의 재연장과 관련한 대책을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것"이라며 "프로그램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을 위주로 논의 중이며, 금융권 손실 부담에 한계가 있다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익공유제 추진을 위한 사회연대기금 조성 논의도 구체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와 산업은행 등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약 4000억~5000억원 규모의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권 도전 의사 밝힌 박용진 의원 광주 방문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

차기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서울 강북을)이 20일 광주를 방문, 1박2일 간의 호남 민심잡기에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인공지능(AI) 청년창업자, 박 의원의 싱크탱크인 은국민행복정치연구소 광주지부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 의원은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4월 7일 보궐선거 승리 이후 본격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대권 도전 선언을 하고 정책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나라는 말할 수밖에 없다"며 "공정한 나라라고 얘기하며 미사여구를 앞세우기보다는 국민 삶 곳곳에서 역할을

한 젊은 개혁 정치인 박용진이 대한민국 미래에 가장 적합한 정치 리더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문제에 강한 젊은 정치인, 개혁 정치인 박용진이 시대 흐름에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방향으로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먹고사는 문제에 한발 한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인공지능 청년창업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AI 중심도시 광주가 되려면 젊은 인재들이 모이고 일자리를 찾고 살 수 있어야 한다"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반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0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의 운상원 열사의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탄소중립 목표 달성 절실함 유지해 달라"

한정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한정에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 및 포용적인 환경 안전망 구축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 두발언에서 "탄소중립이 실제 이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포용적인 환경 안전망을 구축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의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절실함을

장관직 내내 유지해달라"는 당부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2050년에 우리가 어떤 지구, 어떤 대한민국을, 우리 후세들에게 물려 줄 것인지 고민한다면 (탄소중립을) 자꾸 뒤로 미루려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탄소중립 달성의 부담을 뒷세대에 물려주지 않을 수 있게)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올해 안에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NDC는 반드시 지킨다고 국제 사회에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와 이해 당사자들

과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NDC가 정리돼야 배출권거래제 할당 문제 등 다음 숙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청천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첫 주자로 나선 김성원 의원은 발언 시작부터 "도덕성이나 정책적인 검증 등을 하면서, 꽤 훌륭하게 잘 살아오셨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오는 25일 청문회가 예정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거론하며 "비교해보면 박 후보자가 어떤가, 국민들이 인정하겠다. 박 후보자가 의문의 1패를 당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서울시장 경선 박영선-우상호 2파전

野 단일화 논의 주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사표와 박주민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양자대결 대진표가 20일 확정됐다.

박 장관은 신년 정리와 캠프 준비 작업 등을 거쳐 내주에는 공식 출마 선언을 하고 본격적으로 경선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3일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하고 '나홀로' 선거운동을 벌여 온 우상호 의원과 맞대결을 벌이게 됐다. 민주당은 설 연휴 이후인 2월 마지막 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을 치를 계획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치열한 경선 국면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우상호, 박영선의 성을 따면 '우박'이다. 서울시민들께서 우리와 같은 박수로 성원 해주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출선 전수가 두 명에 불과한 데다 양자 간 지지율 격차가 아직 커서 벌써부터 흥행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반대로 야권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야권 통합경선 카드'를 꺼냄에 따라 예상보다 빨리 단일화 관련 논의에 불이 붙은 형국이다. 민주당은 일단 야권의 단일화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향후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공천관리위원장 김진표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박영선·우상호 후보는 우리 당의 대표적인



시의를 표명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정부대전청사를 떠나며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타 정치인"이라며 "마치 메시와 호날두가 축구 시합하는 것처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김희재, 아동학대 의료적 입증증거 확보 법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희재(여수) 국회의원은 20일 아동학대 신고서 의료적 입증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아동학대 수사기관 및 전담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수 차례 아동학대 신고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 입증증거를 확보·제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시, △ 사법경찰 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체 없이 의료



기관으로 하여금 신체검사를 통해 학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 조사를 의뢰 받은 의료기관이 학대 여부를 조사해 의학적 소견서를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이번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면, 원활한 업무수행과 함께 보다 손쉬운 학대 증거확보로 일선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대아동의 조기 보호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재갑, 공영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 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은 20일 공영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용이하게 하고 운영상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적정 수의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두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락 시장 등 중앙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농산물은 여전히 경매를 통해서만 유통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의 농산물 가격 변동성은 높고 출하자는 출하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하며 도매시장법인이 과도한 수익을 독점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 현행법은 도매시장법인을 통한 상장거래의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집하하고 중도매인은 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도매인이 집하하고 도매시장법인의 상장거래를 형식적으로 거치는 기록상장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장도매인제와 현행 경매제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돼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유통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동구 대인동, 싹 땀
(주)신세계오피스텔 H. 010-3605-5000

- ▶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옆
- ▶ 중심상업지역, 대지 515㎡(구, 156평)
- ▶ 지하 1층, 지상 9층, 64호실, 49㎡(14평) 오피스텔 허가 有
- ▶ 지하 1층 공사 中, PF 28억 확정
- ▶ 매매 - 토지 17억, 지하 공사비 3억, 총 20억
- ▶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조정 가능)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아지랑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쉬어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열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